

광주·전남 인구 위기 해법 “지역 공동대응·외국인력 유입”

韓銀·연구원 등 3개 기관, 공동 세미나
청년 순유출·고령화 등 긴급 현안 진단
市·道 “양질 일자리·정주 이민 모델 구축”

청년 순유출·고령화 등 갈수록 심화되는 광주·전남 인구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 간 공동대응과 외국인력 유입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은 15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25년 지역경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구조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세션 I 주제발표에서는 이찬영 전남대학교 교수가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현황과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문연희 광주연구원 센터장이 ‘광주지역 청년 실태와 일자리 정책 방안’을, 최지혜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남지역 노동력 고령화 대응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박완근 광주전남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II 정책토론에서는 최치국 광주연구원장과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유정아 광주시 인구정책담당관,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응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심각한 광주·전남의 인구 위기 실태
주제발표에서는 광주·전남의 인구 위기 현황과 원인이 구체적으로 진단됐다. 2025년 광주지역 청년인구 (19~39세)는 36만4천명으로 2015년 (44만3천명) 대비 7만9천명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순유출 누적 규모는 4만6천명에 달했다.

순유출 광주지역 청년의 88%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유출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다. 문연희 광주연구원 센터장은 낮은 임금 수준, 대기업·고임금 일자리 기반 부족, 교육·고용 연결성 약화, 수도권 대비 부족한 문화·여가 인프라 등을 청년 유출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았다.

전남지역은 고령화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6.7% (47만8천명)로 전국 평균 (19.5%)을 크게 상회하며, 2046년에는 고령인구가 생산연령 인구 (15~64세)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은퇴자를 대체할 차세대 인구대체를 또한 전국

수준을 하회해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한 고령 노동자의 계속 근로 유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력과 지역 협력에서 해법 찾다
심화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유입과 지역 간의 공동 대응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찬영 전남대 교수는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수가 지난 10년간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남성·청년층을 중심으로 내국인 일자리와 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발표는 외국인력 정책을 단순 노동력 보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구조 개선의 중장기 목표와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토론에서는 광주·전남이 인구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지역의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5급 3속 체계를 활용해 광주·전남이 광역연합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인구 위기 대응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병기 전남연구원 실장은 “두 지역이 산업경제적 협력과 인구정책적 공조를 통해 인구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양질의 일자리’, 전남도 ‘정주형 이민 모델’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유정아 광주시 인구정책담당관은 “현재 광주의 인구 위기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 유출과 주거비 절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전남으로의 인구이동이 맞물린 ‘양방향 인구 유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광주시는 AI, 미래차 등 신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추진하는 한편, 복합쇼핑몰 유치 및 문화산업 강화를 통해 도시 활력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장년 유인 및 노동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의 가족 동반 정착을 유도하는 ‘전남형 정주형 이민 모델’을 구축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공동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체감형 이민정책과 인구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만 기자



달러 환율 어디까지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이어지며 외환당국이 대응책 마련을 논의 중인 가운데 15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76.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차기 행장에 정일선 부행장 단독 후보 추천

후보 추천 받은 고병일 행장 사의

내부 출신 승계 위해 선의 경쟁

정일선 광주은행 부행장이 제15대 광주은행장으로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광주은행은 15일 열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일선(사진) 광주은행 부행장을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추천됐으나, 내부적으로 고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안팎에서는 고 행장이 내부 출신 인사가 차기 행장에 오를 수 있도록 후보 경쟁 구도를 펼친 뒤, 최종 단계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길을 터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직 안정과 내부 승계를 동시에 고려한 결단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고병일 행장은 2023년 1월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재임 기간 동안 지역 기반의 상생경영을 강화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직후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광주시 금고를 지켜냈고, 토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권 최초의 공동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사업 영역 확대에도 기여했다.

또한 본점 중심의 보수적인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산 운용과 질적 성장 중심의 영업 기반을 강화해 은행의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광주은행은 2024년 사상 최대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지역금융기관 평가에서도 잇따라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기업여신과 수신 기반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평가다.

광주은행은 오는 17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차기 행장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차기 행장 후보로 추천된 정일선 부행장은 1995년 한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광주은행에 입행한 내부 출신 인사다. 영업, 여신, 인사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은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정 부행장은 여신지원팀 팀장과 첨단2산단지점장, 포용금융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여신 심사·관리와 영업 부문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2021년 인사지원부장으로 이동해 조직 운영과 인사 제도 전반을 총괄했다. 이후 2023년 부행장보, 2024년 부행장으로 연이어 승진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 관리 역량과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부행장이 최종 선임될 경우, 제13대 송중욱 은행장 (2017~2022년)과 제14대 고병일 은행장 (2023~2025년)에 이어 세 번째 내부 출신 광주은행장이 된다.

/임채만 기자

농어촌公, ‘AI디지털처’ 신설…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 전환(AI)을 본격 추진하며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하면서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30년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를 수립하고, 인공지능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공사는 시대적 흐름과 정부 정책에 발맞춰 K

RC-AX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조직·제도적 기반 마련과 업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디지털혁신처’를 ‘AI디지털처’로 변경해 인공지능 총괄 전담 부서로서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임채만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